

우리나라 山村問題의 史的 考察에 관한 研究¹

裴在洙²·尹汝昌²

A Study on the Historical Consideration of Mountain Village Problems in the Republic of Korea¹

Jae Soo Bae² and Yeo Chang Youn²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define the proper concept of the mountain village in Korea comparision to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to examine the causes of mountain village problems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year 1945 whe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nded. This study employs a historical analysis to the problems related to mountain villages. The major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ountain village is defined as a mountain area settled by people and surrounded by the forest environment. I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se areas has been socially and economically underdeveloped, due to the low returns on capital investment compare to other urban and rural areas.
2. Before the liberation of the Republic in 1945, the mountain villages were formed by the settlers who ran away from the home village due to the tenant system under the feudal landownership, and the high spot-farm rent, and by the fire-field farmers who escaped from home village to avoid draft system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egime.
3. The changes in the size of the private forest ownership show that the differentiation of Korean forest owners was not like the traditional European type. It is probably due to the fact that the objectives of forest ownership are not for the production of forest products, but for keeping graveyard and as a means of expanding their wealth. The small scale ownership leads to the basic problems of low investment in forest investments.

Key words : Mountain village history, Classification of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of mountain village, Depopulation in mountain village

¹ 本稿는裴在洙의碩士學位論文 “우리나라 山村問題의 實態와 原因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3)의 内容 일부를 補完하여 정리한 것임.

²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 Department of Forest Resour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uwon 441-744, Korea

I. 緒論

1. 研究의 必要와 意義

지난 30년간의 高度經濟成長은 1950년대의 원조와 1960년대 차관을 통한 外資導入으로 형성된 資本蓄積과 工業化를 뒷받침한 充足勞動力, 低農產物 價格政策을 基盤으로 이루어진 結果物이다. 그러나 「成長第一主義」의 기치아래 이룩된 양적 경제성장은 '큰 뺨'을 굽는 데는 성공했지만 누구에게 어느정도의 뺨을 配分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남겨놓고 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分配構造의 歪曲은 階層·階級間의 갈등뿐만 아니라 地域間의 不均衡을 심화시켰다. 地域間의 不均衡, 즉 都市-農·山村地域間의 불균형 해소는 地域開發의 우선적 과제로 제기되었으나 최근 輸入農產物의 대량依存으로 인해 農·山村問題는 해결되기 보다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高度經濟成長期에 발생한 農業·農村·農民問題²를 分析하고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많은 研究가 수행되었지만 山村問題를 다루는 研究는 山地의 效率的開發이라는 資源開發側面에서 시도되었을 뿐 山村地域의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우리는 아직 山村이라는 概念조차 定立하지 못하고 있으며 山村政策 또한 農業政策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山村地域에서 발생하고 있는 山村問題는 農業이 앓고 있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諸問題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오히려 地形의 特性과 地理의 隔離로 인해 農業問題가 더욱 심화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山村은 山間地域의 중요한 特성인 높은 林野率과 自然地理의 環境의 제약을 받아 農業生產性이 평지에 비해

떨어지고 山林資源이 갖는 資本回轉의 長期性, 낮은 收益率 등 임업이 앓고 있는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로인해 山村地域內 労動力은 대도시로 大量流出되고, 그 결과 過疎化, 老齡化問題가 생겨나게 되며 점차 山村이 지나고 있는 村落의 構成自體와 木材生產·水資源 및 國土를 保全하는 役割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山村問題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중 山村의 過疎化問題를 農村의 離農·離村問題와 동일시 한 것은 山村問題가 農業문제를 그대로 앓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地形의 特殊性과 地理의 隔離로 인한 山村의 特殊性에서 바라볼 때 農業問題와는 차이점을 갖는다.

또한 기존의 山林政策은 山村問題의 本質을 간과했거나 최소한 山村問題를 '山地資源'의 문제로 축소하여 인식해 왔다. 그러나 山村問題의 本質에 대한 理解는 首都圈地域 人口集中으로 인한 都市問題의 發生原因과 奄缺한 環境을 삶의 중요한 價值로 여기게 되는 새로운 철학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山間地域이 지나고 있는 國土保全 및 奄缺한 環境을 維持해 내는 空間的役割과 이를 유지하고 山村地域 經濟를 이끌어나갈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때 '사람'이 계속해서 山村地域을 떠나게 되는 현상은 山村地域의 崩壞 및 首都圈地域의 人口過密問題를 계속해서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山村住民을 그 地域의 山林을 經營할 수 있는 潛在的勞動人口로 바라볼 때 山村住民의 안정적인 定住條件를 마련해 주는 정책은 山林政策의 고유한 領域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山村問題를 山地라는 資源中心의 관점과 農業問題의 일부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資源을 管理하고 地域經濟를 책임질 사람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나라 山村의 實態를 파악해 보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¹ Dudley Seers 교수(1982)의 「커다란 뺨을 어떻게 잘라 배분하느냐를 생각하기보다 우선 큰 뺨을 구워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를 대표한다 할 수 있다.

² 農業문제와 더불어 農촌문제 및 農민문제라는 말이 잘 사용되는데, 이들은 결국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農業은 農촌에 의해 영위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農業문제를 지역적으로 풀이 한 것이 農촌문제이고, 주체적으로 본 것이 農民문제이다(박진도, 1989).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에 수행되었던 局地의인 山村實態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미시적 접근방식대신에 산촌문제의 발생원인을 사적으로 고찰하여 지금의 산촌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촌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산촌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에는 우선적으로 山村社會가 갖는 特性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 地域社會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史의으로 많은 變化를 거쳐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山村社會 역시 他地域과 区別되는 特殊性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山村社會가 갖는 性格이 달라지게 된다³. 기존 研究의 偏向으로는 山村地域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여 山村이 갖는 歷史性과 山村住民이 갖는 價值觀이나 行動樣式을 소홀히 했던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山村問題의 발생을 日帝下 歷史的 特殊性을 고려하여 植民地時期의 火田民을 대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 山村의 特殊性과 山村問題의 原因을 고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研究方法

1) 關聯變數의 設定

일제시기의 山村의 발생과 실태에 관련되는 변수로는 解放前 山林所有關係와 人口推移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山村의 發生과 山村問題의 原因을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변화과정과 地主一小作關係에서 파생한 高率의 小作率에 반응하는 火田民數의 推移를 통하여 밝혀 보고자 한다. 해방이후 山村問題의 實態와 原因은 현재 대표적인 山村問題인 農·山村地域의 離村現象과 小規模 山地所有關係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겠다.

2) 資料의 薦集

山村의 발생과 실태와 관련하여 필요한 解放前 資料는 朝鮮總督府 統計年譜 및 各種文獻을

이용하였고 解放後 資料는 各種 統計要覽 및 研究論文을 이용하였다.

3) 研究方法

해방전 山村社會의 모습은 해방전 문헌을 통하여 山村社會가 갖는 特性를 정리해 내고 특히 그 당시 火田民의 발생과정과 실태를 분석하여 山村의 실태와 山村의 발생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해방이후 山村問題의 실태와 원인을 전국단위의 統計資料를 이용하여 農山村地域의 離村現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小規模 山地所有關係는 山主層分解 理論에 의해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II. 本論

1. 山村과 山村問題에 대한 概念의 定立

산촌문제의 발생과정을 史의으로 고찰하기 전에 山村의 定義와 山村이 갖는 性格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山村의 概念은 각 나라마다 주어진 環境과 山林이 地域에 미치는 影響에 따라 다르게 定義될 수 있다. 하지만 世界各國의 山村定義를 통하여 공통된 山村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山村의 概念을 定立해보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우리나라와 日本, EC의 경우로 나누어 山村의 定義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山村의 概念에 관한 기존의 研究를 살펴보면, 洪慶姬(1985)는 山村을 “山間에 위치하여 山地資源을 利用하며, 農業·林業을 중심으로 한 1次生產을 主로 하는 村落”으로 바라보았으며, 이는 農業과 林業의 產業的側面을 強調한 定義로 파악할 수 있다.

金一鐵(1988)은 山村地域을 定住單位로서의 지주지를 聚落으로 파악할 때 村落(rural settlement)의 한 형태로 파악하고 農村의 한 구

³ 결합체 사회학의 거장인 Elias(1983)는 역사학과 사회학의 분야에 대해 「결합체가 어느 한 순간에도 멈추어 있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든 항상 흘러가고 있으며 흘러간 것이 곧 역사라 한다」 면 사실상 역사와 사회는 개념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역사학과 사회학의 지적분업이라는 신화」라는 표현으로 사회학과 역사학이 분리될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다.

분인 山村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農村을 平野村과 山村으로 구분하여 山村을 農村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본 것으로 山村을 獨立된 聚落構造로 보지 않고 있다.

山村을 社會·經濟的側面에서 바라본 概念으로 1988년 立法된 奧地開發促進法에 定義된 奧地라는 概念이 있다. 奧地라는 用語는 흔히 우리들이 사용하는 山村이라는 用語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법에서 奧地라 함은 도시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이 불편하고 住民의所得水準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法制化된 이 정의는 地域間 不均衡을 낳고 있는 지역을 行政的으로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定義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파해서는 안될 것은 山村의 概念을 지리적 공간에 위치한 단순한 촌락이 아닌 地域社會를構成하고 있는 地域住民을 포함한 社會·經濟構造로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지리적 공간으로서의 특징과 함께 山村地域의 社會·經濟變數를 대표할 수 있는 概念定立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山村地域이 안고 있는 問題點(山村問題)을 社會·經濟的變數로 채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發生하고 있는 주요한 山村問題에 관한 既存의 研究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류우의 등(1988)은 산촌지역의 특성을 地域內 接近性이 낮고, 大都市로부터 遠隔하며, 耕地率이 낮다는 自然地理의 環境의 制約을 1차적 특성으로 보고 이러한 1차적 특성에 연유하여 발생하는 土地의 低生產性, 人口가 稀薄함을 2차적 특성으로 보았다. 교통이 불편하고 소득수준이 낮으며 인구가 회복하다는 사실은 지역이 갖는 需要密度를 制限하고, 규모가 큰, 또는 계층이 높은 中心地의 發達을 어렵게 하며 產業立地의 상대적 열세를 면하기가 어렵게 되어 菲연적으로 山村地域은 中心地의 規模가 작고, 都市의 產業基盤이 脆弱하며, 住民生活의 質이 떨어지고, 주민이 떠나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낳게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3차적 특성으로 보았다.

이광원(1989)은 山村이 갖는 問題를 地理的

僻地性, 山村의 過疎化, 傾斜地農業에 의존하는 耕種法, 山地利用規制로 보았으며, 洪慶姬(1985)는 山地는 生產力이 적고 인간의 생활상의 조건이 좋지 못하므로 人口密度가 疎하고, 山村의 村落構造는 形式的으로 谷底에는 集村, 山腹에는 散村이 많다는 등 山村의 性格을 10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홍경희, 1985, pp. 356~357).

山村問題의 하나인 農山村 地域의 離農에 대해 이정용(1989)은 우리나라 離農의 原因을 時期의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1950년대의 零細小農들이 再生産機能이 와해되어 離農코자 하였으며 이를 1960년대에 들어와 輸出産業中心의 工業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雇傭機會가擴大되고 이에 기인한 零細小農의 離農을 흡수한 것으로 보았다. 1970년대의 離農은 重化學工業의 育成과 더불어 褊은 층의 部分離農을 크게 증가시켰고 1980년대에 들어와 部分家口員離農과 더불어 全體家口離農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의 原因은 獨占資本의 要求와 開放農政에 따른 農產物價格의 慢性的의 停滯에 기인한 農家の 相對的 貧困이라고 보고 있다.

南康源(1992)은 농촌노동력 유출과 유출뒤의 농촌노동력 구조가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겪었던 傳統的 農民層分解와 달리 小農民 温存·維持라는 이질적인 分解의 類型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2) 日本의 경우

鹽谷勉(1973)은 이제까지 日本 山村에 대해 ① 단순히 都市, 平地農村, 農山村에 연속하는 地理의 空間이라는 見解 ② 發展段階의으로 보아 農村이 되기 이전의 原始的 農村이라는 見解 ③ 社會的 分業의 觀點에서 地域의으로 林業을 主로 하여 分化내지는 特化된 地域이라는 見解 ④ 社會·經濟의 측면에 主眼을 두어 都市 등 他地域으로부터 격리되어 社會的, 經濟的 諸條件이 늦게 成立되었을 뿐만 아니라 文化的 諸條件와 生活相의 諸條件도 落後된 채 成立된 地域이라는 見解 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農林業센서스(1980)의 農業集落에는 農業集

落類型의 하나로 「山村的 集落」을 區分하고 있다. 그것은 土地利用中에서 林野가 지배적이며 이로인해 林業의 土地利用이 우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林業에 의존하는 林家가 존재하는 集落으로 보고 있다.

森巖夫(1973)는 山村의 概念을 山과 村으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고 組合語로서의 山村의 概念 '林業集落'으로 定義하였다⁴.

日本의 山村問題에 대해서 鹽谷勉(1973)은 산촌이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진홍시켜야 하는 이유를 現代資本主義가 안고 있는 地域間 隔差의 問題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한편 半田良一(1990)은 日本에서의 山村問題의 發生原因에 대하여 1950년대 이후의 高度經濟成長으로 인한 工業化, 都市化를 그 原因으로 보고 있다.

3) EC의 경우

먼저 EC의 山村에 대한 定義는 山林에 대한 認識과 社會·經濟的 상황에 의해 他地域과는 다르게 定義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미국과 EC와의 農產物貿易의 마찰에서도 보이듯이 EC의 農村과 山村에 대한 政策方向은 過剩農產物을 억제하기 위하여 農業人口를 감소시키는 農業構造政策과 山岳地·丘陵地 및 特定의 條件不利地域(LFA : Less-Favoured Areas)의 인구를 地域內에 維持시켜 地域의 環境을 保全하려는 山村振興政策이 推進되고 있다.

결국 EC의 山村에 대한 관심은 1969년 共同農業政策에서 제시한 林野率 80% 이상, 傾斜地 農業(목야지, 초지)과 林業所得이 40% 이상이라는 지표설정에서 1975년에 制定된 「山岳地·丘陵地 및 特定의 條件不利地域의 農業에 관한 準則」에서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지표설정

으로 변모하였다. 이 지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標高 600m 내지 800m 이상인 지역이 기 때문에 農業條件이 劣惡하고, 農業의 低生產性으로 인하여 人口密度가 낮고, 전원지역 및 관광자원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산촌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산림을 바라보는 基準이 產業的 側面에서 環境的 側面을 중요시하는 方向으로 轉換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永田惠十郎, 1989).

4) 우리나라에 適合한 山村概念의 定立

山村의 定義에 있어 우리나라, 日本 및 EC는 林野率, 耕地率, 人口減少率, 人口密度 등 유사한 指標를 利用하여 定義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山村의 指標를 設定하는데 있어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 林業의 位置를 山村의 指標로 設定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洪慶姬(1985)는 山村의 정의에서 農業·林業을 중심으로 한 1차생산을 주로하는 村落이라고 定義하였지만 실제로 林業의 위치를 지표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林業所得이 전체가 계소득의 어느 정도를 충당해야 山村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좀더 근본적으로 林業이라는 產業的 側面이 山村에 관한 하나의 指標가 될 수 있는가라는 疑問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各國의 山村地域 區分指標를 통하여 볼 때, 임업이라는 산업적 측면보다는 山村地域⁵과 他地域과의 不均衡을 解消하려는 政策의 次元의 문제와 환경적 문제로부터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경우를 견주어 볼 때 우리나라의 산촌은 지리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주위가 山林이라는 環境에 둘러쌓여 위치하는 지역의 개념으로, 지리적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측면에서 山林이라는 環境에 큰

⁴ 森(1973)에 의한 임업집락이라 함은 그 집락내의 사람들 전체가 「스스로 임업을 경영하는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스스로 산림을 소유하지 않고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배적인 집락도 「임업집락」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또한 임업의 범주로서 유통과 벌출에 한정하지 않고 목재의 생산, 제탄업, 산림 부산물(산채, 베섯 등)의 생산 또는 채취, 거기에 산림관광, 레크레이션 이용 등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집락도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⁵ MacIver와 Page(1967)는 지역사회를 共同生活圈(Area of common life)이라고 말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토대는 地域性(Locality)과 共同體意識(Community sentiment)에 있다고 하였다. 결국 산촌사회를 지역사회의 특수한 형태로 바라본다면 산촌지역이 갖는 고유한 共同體意識을 살펴봄으로서 산촌사회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歷史的으로 形成한 村落으로, 그리고 산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1960년대 이후의 高度經濟成長期間동안 資本의 效率性이 떨어져 社會·經濟의 方式으로 落後된 地域으로 定義될 수 있다.

2. 山村問題의 發生 및 變遷

1) 解放前 山村問題의 發生 및 山村實態 (1910~1945年)

지금까지 산촌에 관련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기에 발생한 地域間不均衡이라는 관점에 치우쳐, 산촌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무시된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山村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지금의 산촌이 형성되기까지의 經路는 어떠했는가? 또한 지금의 산촌이 형성되기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要因은 무엇이었는가? 과거 산촌에 거주한 주민들의 삶은 지금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갖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명 역시 山村研究의 學問的範疇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山村의 形成過程과 背景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지금의 산촌구조와 산촌문제를 규정하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의 요인을 이해하는 근본이라 생각하기에 첫번째 질문으로 제기한 산촌의 형성과정 및 배경에 한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전 山村實態 및 山村問題의 발생에 관해서는 해방전 전체 社會·經濟構造가 일제의 殖民지정책에 의해 변화되고, 결국 전제 社會構成體의 특수한 형태로써의 산촌 형성 및 변화 과정을 통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러한 접근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해방전 統計資料 및 文獻에서 山村의 地帶區分이나 뚜렷한概念으로 山村의 位置를 밝힌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정의한 산촌의 개념을 적용하고 지리학자에 의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전통적인 산촌형태로 밝혀진 火田部落의 火田民⁶과 火田實態를 통하여 山村의 發生과 山村問題의 原因, 山村住民의 實態를 고찰하고자 한다.

(1) 山村經濟의 實態

山村經濟의 구조는 당시의 자료부족으로 정확한 파악은 곤란하나 최근까지(1979년 공식적으로 화전이 정리됨) 火田農業을 실시했던 火田部落은 同族部落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장 특색있는 산촌(홍경희, 1985)으로 볼 수 있기에 火田民의 經濟構造를 中心으로 당시의 山村經濟構造를 살펴볼 수 있다.

火田이 대체로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등 북쪽 국경지대에 집중되어 있어서 기온이 낮고 일찍 서리가 내리는 지방인 데다가 대부분 비탈진 곳이며 또 시비를 거의 하지 않는 영농이 있으므로 그 작물도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화전지와 일반경작지와는 경사의 완급, 耕作期間의 長短, 所有地의 多少, 소유관계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화전은 비교적 경사가 급하고 경작하는 기간이 짧으며 비료를 주는 일이 없고 비교적 山狹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작자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조선일보 1931년 3월 8일자). 따라서 작물도 조, 감자, 콩, 팥, 옥수수, 귀리, 메밀 등으로 한정되어 재배되었다. 이 밭작물을 경작하는데 드는 勞動力은 보리가 南部農業地域에 비해 47%, 밀이 60%, 감자가 56% 등 粗放의 형태의 耕作方式을 띠고 있다(강원

⁶ 金在錫(1931)은 「조선의 화전과 화전민 생활」이라는 조선일보 연재(27회 연재)에서 화전민을 일제시대 이전 이조시대의 화전민을 舊火田民으로 칭하고 이들은 비교적 문화가 보급된 곳, 교통이 일찍 발달한 지방에 널리 분포하고 적은 수지만 재산증식이 가능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기사(1931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에서 구화전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전자(구화전민)는 수십 년 내지 수백 년 동안을 대대손손 상속하여 화전경작을 해서 생활해온 자인데 그들은 그 동안에 시행된 토지조사와 임야조사 당시에 檢定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그들은 사정 후의 세금을 무서워했으며 출원수속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그 시기를 놓치며 그 방법을 아지 못하여 그 경지가 국유림으로 편입된 까닭에 화전민이라 부르게 된 자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日本 植民統治에 의해 발생된 新火田民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 1976). 하지만 당시의 農業市場構造가 米穀과 特作物을 제외한 품목은 배제되었고 山村地域의 논작물이나 밭작물은 資本의 不足 및 山地의 農業制約性으로 인하여 自給自足的 性格을 지닌 經濟構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음으로 山村經濟가 農村經濟와 구별되는 주요 특성인 林業의 山村經濟內에서의 위치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1910년부터 1940년까지의 林產物 生產額을 살펴보면 우선 薪材, 木炭, 枝葉, 柴草 등 燃料로 사용되는 林產物이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당시 燃料構成의 대부분이 木材가 原料인 薪材, 木炭 등이므로 燃料確保란 측면에서 山林의 役割이 강조되었음을 당연하다. 한 예로 1925년 薪材, 木炭, 枝葉·柴草의 合計는 7억5천9백만kg으로 8톤트럭 9천4백9십만대 분의 엄청난 양이다. 당시 薪材, 木炭, 枝葉·柴草의 總 燃料額은 42,583千円으로 1925년 玄米 3등급 한석(石)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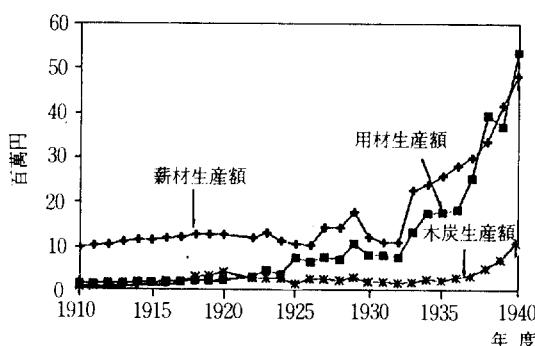
38.16円으로 나누면 111만 섬의 미곡량과 같다. 이것을 현재(1991)의 쌀 한석 가격 11만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1천2백억원이 넘는 액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燃料가 서울의 錢의동과 안국동, 뚝섬과 마포 나루터 등에 장작을 전문으로 파는 산매장에서 거래되긴 하였지만 山村住民이 燃料를 商品으로 취급하여 資本蓄積을 통한 利潤의 확보라는 資本制의 關係가 아니라 집안에서 사용하는 自給自足의 性格과 生活必需品을 購入하기 위한 交換對象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日帝의 植民地 政策의 變化는 林產物 價格의 變化와 林產物 生產을 變化시켜 결국 生產額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林產物 生產額을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정리한 표와 林產物 總生産과 用材, 薪材, 木炭의 生產額 推移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면 日帝의 植民地 政策이 林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다(〈그림 1〉).

〈표 1〉 解放前 山林生産額 (1910~1940年)

單位 : 1000円

區分	用材		薪材		木炭		總	年
	年度	數量(千貫)	金額	數量(千貫)	金額	數量(千m ³)	金額	
1910	740	1122	1668380	9534	5185	365	19240	1.516
1915	823	1496	1855210	11131	8781	618	22945	1.818
1920	979	2225	1961750	12611	19782	3957	30206	2.272
1925	1474	7469	599025	10671	13841	1618	53486	5.066
1930	1377	8389	528026	12208	19333	2214	63360	6.092
1935	2265	18137	1427598	26412	23395	2686	114005	8.007
1940	3364	54375	1137836	48826	38240	11407	236674	16.162

資料 : 각 朝鮮總督府統計年譜



[그림 1] 우리나라의 解放前 林產物 生產推移
(1910~1940年)

薪材와 木炭의 경우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用材生產은 1932년 이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日本의 大陸侵略政策과 兩次戰爭을 수행해 나가기 위하여 鴨綠江一帶의 大樹林을 벌채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⁷. 특히 滿洲事變이 시작되는 1931년부터 계속되는 日帝의 大陸侵略政策은 조선의 임업구조를 연료에서 용재 생산위주로 변화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대륙 침략을 감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인을 충당하기 위한 강제징용을 피해 대량의 화전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화전민의 생활이 곧 산촌주민의 생활이라 할 때, 火田民과 自作農, 自小作農, 窮農의 가계상태를 비교하여 보면 산촌경제의 실태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金在錫(1931)에 의하면 자작농의 수입이 646圓, 지출이 559圓으로 78圓의 이익을 본 반면 자소작농의 경우는 수입 241圓, 지출 242圓으로 1圓의 부족이, 궁

농의 경우는 102圓의 수입에 106圓의 지출로 4圓의 부족이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화전민의 수입이 96圓 28錢, 지출은 85圓 29錢으로 10圓 99錢의 이익을 얻고 있다. 물론 이 자료가 당시의 상황을 전부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화전민의 경제상황을 단편적이나마 보여주고 있다. 자작농과 자소작농, 특히 궁농에 비해서도 수입과 지출면에서의 절대적인 부족을 원시적인 자급자족의 생활과 소비의 감량으로 견뎌내며 생활하였음을 볼 수 있다.

(2) 山村의 發生과 社會·文化的 實態

① 解放前 火田民과 山村의 發生

山村의 發生을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파생된 植民地 半封建社會로서의 朝鮮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진지역의 農業生產關係는 그 경영의 성격이나 규모에서, 그리고 기술의 발전정도, 상품의 범위 등에서 다양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의 土地所有의 性格은 封建的, 半封建的 基盤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된다. 이것은 유럽의 전형적인 封建制와 달리 과거, 식민지였던 지역의 封建的 生產關係는 대체로 특수한 아시아적 공동체의 遺制를 기초로 하여 帝國主義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하에서 그들의 收奪體制의 構造的部分으로서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유인호, 1977).

이러한 經濟構造는 地主一小作關係를 農村經濟의 中心으로 재편하였으며 점차적으로 小作地와 小作人을 대량으로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14년 이후 小作面積의 變化를 보면 <표 2>와 같다.

⁷ 1932년 일제는 압록강, 두만강의 상류지역 8개군, 무산군·갑산군·삼수군·풍산군·장진군·자성군·후창군·강계군 등의 216만정보에서 있는 3억 7,600만척제(124백만m³)의 나무와 그 안에 있는 30만정보의 농경적지를 대상으로 해서 첫째 산림의 이용 개발을 위한 산림철도 및軌道의 부설과 簡易製材工場건설, 둘째, 화전민 30,570호, 177,184명과 화전면적 74,978정보에 대한 정리, 세째 산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北鮮開拓事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화전민을 이 지역에서 정리하여 산림벌채노동력으로 이용하여 산림벌채수익을 올리려는 정책이었으나 화전민과 지도수와의 마찰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朝鮮總督府, 1932. (秘) 北鮮開拓事業書).

〈표 2〉 1914年以後 小作面積의 變化

單位 : 千町步

연도	자작면적	소작면적	연도	자작면적	소작면적
1914	1,421.1	1,627.0	1925	2,149.6	2,198.7
1915	1,509.3	1,661.3	1930	1,948.9	1,439.7
1918	2,152.5	2,189.6	1935	1,892.9	2,539.4
1920	2,126.9	2,195.1	1938	1,867.1	2,569.7

註 : 화전은 포함되지 않음.

資料 : 농림부 농지국, 1962,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농지개혁’ 편찬용 참고자료).

自作面積의 경우 1914년 142만정보에서 1938년 187만정보로 약 45만정보가 늘어 1.3%의 낮은 증가를 보이지만 小作地의 경우 1914년 163만정보에서 1938년 257만 정보로 94만정보가 늘어났으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2.4%로 自作地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

농업생산에 있어서 그 農奴制의 性質은 무엇보다도 흡수형태에 이윤의 성립을 불가능케하는 지대범주인 現物小作料에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이 현물소작료야 말로 조선 농업생산에 있어서 반농노제적 흡수관계 확보, 지주자격의 압도적 우세력 확보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 확보의 근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수취관계는 첫째로 물남형태 소작료의 압도적 우세, 즉 전 조선을 통하여 담 93.9%, 전 92.1%, 전작 46.1%를 점령하는 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물남형태의 압도적 지배 하에 극소수의 금남형태가 있으나 이것은 그 성질상 물남소작료의 형태전화에 불과한 것으로

로 「잉여가치초과부분=자본가격 지대, 혹은 그에의 과도적 형태가 아니요 일반적 현물소작료와 같이 반농노적 지대범주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로 현물소작료의 극도의 고율, 즉 「담소작료의 생산고에 대한 비율」이 보통 정조 40~50%, 타조 45~60%, 보조 50~55%, 집조 40~55%라는 고율성에 타조집 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조선은행조사부, 1948). 또한 이를 小作農은 收穫物의 5내지 7할에 달하는 고율현물소작료를 빼앗기는 半封建 收奪 아래 絶量과 離散이라는 극한적 생활조건에 내몰리고 있었다(장상환, 1985)⁸. 결국 地主一小作關係의 擴大와 高率의 小作料에 견디지 못한 농촌 주민들은 日帝의 收奪政策과 地主一小作關係를 피해 산속에 들어가 火田民으로 전락하게 된다⁹.

그러나 萩野敏雄(1965, p. 43)은 「혼란한 조선사회에서 계속하여 발생한 流民의 일부가 산림에 들어가 화전민이 생겼다. 이러한 형태는

⁸ 이상의 현물소작료를 1930년의 공황시세로 환산하면 반당소작료에 있어서 보통 담 7.97원내지 11.95원의 고액이 되며 이것을 각국의 반당소작료 즉 영국의 2.50원(제1차대전전) 스코틀랜드의 2.00원(1912~1920년의 평균), 아일랜드의 1.80원(1881~1920년 평균), 프러시아의 1.92원(1913년), 오스트리아의 1.50원(1913년), 불란서 1.20~1.60원(1913년), 미국의 1.00~1.50원(1913년) 등과 비교한다면 양자의 차이는 단순한 양적 차이가 아님은 일견 명료하다(일본평론사판, 경제학전집, 제42권 653쪽)

⁹ 1925년의 일본내 무상사회과조사에 의하면 「조선농민의 전업상태」에 대해서 (ㄱ)상공업 혹은 노동자로 전업한 자 110,251인 (ㄴ)일본, 만주 혹은 서백리아로 이주한 자 29,632인 (ㄷ)일가 이산한 자 기타 10,332인 합계 150,112인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농촌을 떠나게 된다. 이 다수농민의 이촌은 상공업이 발달이 불충분한 조선에 있어서는 그들을 수용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방랑적 농업노동자가 되든가 도시에 집중하여 공장노동자의 길을 기대하면서 부단히 노예적 저임금조건으로 공장노동자들을 경쟁압박하든가 화전민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외로 유랑의 길을 떠나든가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조선은행조사부, 1948).

타 후진제국(대만, 만주)에서 보여지지 않는 형태로¹⁰ 화전경작민이 당초부터 있던 다른 나라와 달리 조선의 화전민은 李朝社會가 創出한 것이다」라고 조선사회가 화전민을 창출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姜萬吉(1987, 1987, p. 118)은 일제시대에 있어서의 화전민수의 증가현상은 李朝時代 이래 그것의 자연추세적인 연장이 아니라 식민지 경제정책이 빚어낸 하나의 특수현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조시대에 있어서의 火田民數의 증가현상과 일제시대의 그것과는 양적인 차이가 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는 1909년 14,541정보(강만길, 1987, p. 118)인 것에 반해 1938년의 화전면적은 이의 30배인 44만정보에 이르는 것과 조선시대의 화전민(舊火田民)의 경우 자본축적이 어느정도 가능하였지만 일제시대의 화전민(新火田民)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소비생활을 줄여 생계를 유지할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아 일제시대 화전민의 발생은 양과 질면에 있어 특수한 형태로 파악된다. 결국 일제시기의 화전민의 발생은 대만, 만주 등 다른 나라와도 큰원이 다르며 조선시대의 그것과도 다른 일제의 식민지정책에서 파생된 「植民地型 火田民」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火田이란 한글 특유의 명칭인데, 산지나 경사지의 수목을 모두 태워버리고 그 跡地에 단기간 작물을 재배하는耕地를 말한다(洪

慶姬, 1985). 火田의 경우 火田만을 경영하는 火田民과 火田과 熟田을 兼業하는 火田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 자료의 火田戶數는 火田만을 經營하는 火田戶數다. 1940년 火田面積은 전 국토의 1.8%로 平安北道, 咸鏡南道, 江原道를 中心으로 散在되어 있었다. 화전민수와 관련한 통계는 1924년의 「화전의 현상」과 1928년의 「화전에 관한 참고서」 第 2册에서 볼 수 있는 데 약 120만명선으로 추정된다(강만길, 1987, p. 118). 이는 1920년대 말부터 총독부가 화전정리를 강력하게 시행하고자 “火田整理에 관한 特種機關”的 설치 및 “火田 및 火田民의 整理救濟委員會”를 두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화전민의 안정적인 정주조건의 마련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채 맹목적으로 행한 정책의 실패로 볼 수 있다¹¹.

火田面積과 火田戶數의 推移를 보면 〈표 3〉과 같다.

1926년 이후 火田面積을 살펴보면 매년 약간의 증가를 보이다가 1933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26년 火田面積이 15만정보에서 1933년 36만정보로 2.4배가 늘어났고 純火田戶數 역시 34,316호에서 60,497호로 76%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이유로는 1931년의 中日戰爭을 기점으로 계속되는 戰爭의 危險과 高率의 小作料로 인해 이를 벗어나고자 大量의 流浪民이 發生하였고 이를 중 많

¹⁰ 김재석(조선일보, 1931년 3월 12일자)은 러시아와 대만, 일본, 만주의 화전민을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화전민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기타 어떤 국토 어떠한 지방을 막론하고 猛獵時代로부터 또는 主農時代로 변화변천할 그 당시에는 다 같은 이 현상(화전과 화전민 - 필자)이 있었던 것이며 지금도 이 사실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은 국가는 있지 아니하다. 다만 조선은 그것이 심하다는 것과 그 대부분이 훌륭한 농민이었던 상당한 문화인이었던 사람이 또다시 원시적인 인류와 같은 생활로 환원하게 된 것이 다른 곳과 같지 않은 점이다. 즉 외국의 그들 화전민은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도시평지이나 외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순수한 원시인이고 화전경작을 정신적 고통으로 느끼지 아니하는 행복된 화전민이라는 것이다.

¹¹ 일제의 화전정리사업의 실패 원인을 구체적인 자료로 살펴보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화전민에게 미간지를 정주지로 설정하여 이주하는 정책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함북지방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일본재벌의 책동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다는 동아일보(1928년 10월 2일자) 기사를 통하여 화전민의 안정적인 정주조건을 형성하는 정책보다 일본의 대재벌(住友會社, 三井會社 등)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화전민을 솔잎을 먹는 송충이보다 더 바위하였다는 기사(동아일보 1929년 8월 24일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도 대상인 화전민을 무시하는 고압적인 정책이 결국 화전정리사업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표 3〉 火田面積과 火田戶數의 變遷
(1926~1940年)

연도	화전면적 ¹ (정보)	화전호수 ² (호)
1926	152,715	34,316
1927	153,680	29,131
1928	178,261	33,269
1929	176,762	34,332
1930	180,722	37,514
1931	210,155	41,212
1932	202,158	60,497
1933	366,570	82,227
1934	422,624	81,287
1935	417,854	76,468
1936	437,730	74,727
1937	437,126	72,919
1938	442,045	71,187
1939	437,750	69,280
1940	423,072	65,990

資料 : 1926~1932년의 자료는 洪慶姬, 1985. 村落地理學, p. 374.에서 인용.

1933년 이후는 朝鮮總督府 統計年譜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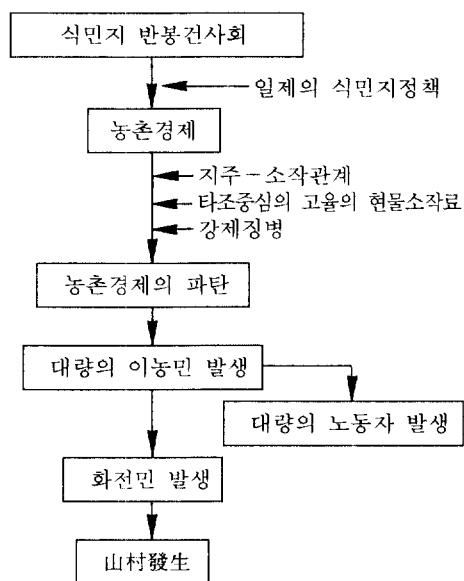
1: 전체 화전면적, 2: 순화전 호수.

은 사람이 滿洲나 外國으로 떠나거나 火田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².

결국, 화전을 행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촌락의 형성은 일제의 植民地政策으로 파생된 「殖民地 半封建社會」라는 社會構成體속에서 농촌경제는 지주-소작관계와 고율의 소작료로 인해 과탄의 과정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화전민의 발생 및 산촌의 형성과정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日帝時代 山村의 發生過程

② 解放前 山村住民의 生活實態와 山村問題

산촌주민의 생활상 역시 화전민의 생활상으로 대체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20년대 이전의 화전민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기반한 土地調查事業으로 인해 토지로부터 이탈된 농민으로 발생되었지만 일제의 식민지정책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화전경작내에서도 地主-小作關係가 일반화하기에 이른다¹³. 화전지역내 지주-소작관계는 결국 화전민은 流浪하는 화전민과 定住하는 화

¹² 이 시기의 상황은 평지의 농민이 토지로부터 이탈되어 화전민이나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회전민조차 당시에 만연된 지주-소작관계와 화전금지조치로 인하여 외국으로 떠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예로 동아일보 1927년 3월 18일 기사가 매우 인상적이다.
십육일 안주(安州) 성내를 지나는 오십여명의 남녀 동포가 있었다. 이들은 살길을 찾아 정든 고국 산천을 벼리고 간도(間島)로 가는 이민의 무리로 평남 순천군 봉명면 봉창이라는 산골에서 화전을 경작하여 그날그날을 경작하여 지내던 화전민들로서 당국에서 화전경작을 금지한 후부터 생계를 도모로 머나먼 곳을 향해 떠나는 길이라는데 겨우 여비만 장만하여 가지고 있다더라(현재의 표기 및 어법에 가깝게 고쳤음).

¹³ 일제하 화전민의 상황을 크게 일제의 화전민정책의 변화에 따라 2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 시기는 1910년부터 1916년까지 화전민정리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했던 기간으로 화전민이 많이 거주하기로 유명한 갑산·삼수 등지에서도 화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 광범하고 자유로이 경작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주-소작관계가 생기지 않은 시기다. 두번째로 1926년 이후 해방까지의 시기로 화전농업 자체 내의 농민층 분화에 의해 지주-소작관계가 발달해갔던 시기다. 이러한 이유로 강만길(1987)은 식민지 시배정책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에서 烹겨나는 일종의 예비화전민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조선총독부의 화전금지정책은 계속 강화되어갔으므로 농경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화전민이 불어나는 한편 화전개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도 가지지 못한 채 농촌을 떠나 화전지대로 들어오는 농민들이 많았다고 또, '원시적' 이었던 화전민사회에 상품·화폐경제가 침투함에 따라 화전농업에도 지주-소작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천민으로 또 한번 分解시켜 산촌주민의 생활상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火田民의 生活은 單純한 經營方式과 不安定한 生活로 代表된다. 火田民의 火田耕作은 自家勞動力과 家畜에 의존하고 있으며 高利의 營農資金과 長利穀의 轉貸를 받아서 경작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며, 주로 食糧作物을 경작하고 때로는 大麻, 煙草 등의 特殊作物도 耕作하였다(山林廳, 1980). 또한 火田民들은 대개 소, 돼지, 닭 또는 꿀벌 등을 사육하고 때로는 養蜂, 木炭製造業 등으로 副產物收入을 도모하며 어느 지방에서는 冬期伐木作業地에서 伐採勞動이나 牛畜運材에 從事하여 現金收入을 올리는 일도 있다(山林廳, 1980). 아무리 火田地帶라고 하더라도 이따금 마을로 내려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야하는데 마을로 내려올 때에는 버섯, 도라지나 고사리와 같은 산나물, 산삼과 당귀와 같은 약초 등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해가며 생활하였다(미승우, 1983).

火田民의 具體的 生活實態의 例로 1926년 江原道 火田民 實態調查報告書가 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火田民의 生活은 資本蓄積을 할 수 없는 열악한 經濟狀況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한 형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상황을 보면 평균 5인의 家族構成員을 보이고 있고 춘친(2), 삼척(2)와 통천처럼 自家勞動力 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춘천(1)과 양양(2)처럼 대가족을 거느린 촌락이 성립되기도 하였다. 지역마다 촌락의 양상이 다름은 自然的 立地와, 社會·經濟的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1개년 수입을 보면 더욱 각지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춘천(1)과 양양(2)처럼 作物爲主의所得이 主를 차지하는 地域이 있는 반면 춘천(2), 이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副業收入이 높은 지역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火田民들의 生活이 食費와 生活費를 지불하는데 그치고

資本蓄積이나 投資를 할 수 있는 地域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1935년도의 統計에 의하면, 당시 일반 국민의 年間 最低生活費가 400~500원이었는데 약 82%의 農民의 年收入은 400원 미만이었다. 그러나 1936년도의 朝鮮日報 報道에 의하면 咸鏡南道의 火田民 여섯식구의 일년동안 食費는 6원 50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니 日帝가 말하는 最低生活費 400원의 60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미승우, 1983). 이는 家族의 全所得이 단지 肉體의 1活動(Physical efficiency)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 불충분한 경우를 절대적인 빈곤(Rowntree, 1941)으로 정의할때 결국 山村住民을 대표하는 火田民의 生活은 資本을 蓄積함만한 基盤과 山村으로의 商品侵入이 거의 없는 孤立된 상태로, 그날그날의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貧困¹⁴ 이라는 問題가 山村問題의 中心을 이루었다.

2) 解放以後 山村問題의 發生 및 山村實態

해방이후 1979년까지 火田民은 국가의 강력한 시책과 산림조성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급히 정리되어 공식적으로 화전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화전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山村問題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해방이후 山村問題는 1960년이후 高度經濟成長期의 工業化, 都市化過程에서 타 산업과의 資本의 效率性 차이로 인하여 새로운 山村問題인 過疎化, 婦女化, 老齡化 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過程에서 發生한 山村問題를 山村地域의 社會·經濟 여러 分野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가장 代表的인 것으로 山村地域人口의 減少를 農·山村地域의 離農現象으로 대체하여 살펴보고 山村問題의 林業의 本質인 小規模 山地所有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¹⁴ 화전민의 열악한 상황, 특히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強萬吉, 1987, 日帝時代貧民生活史 研究 : 火田民의 生活, 創作社, pp. 169~234. 을 참조할 것.

〈표 4〉 江原道 火田民 實態 (1926年)

경작면적	춘천(1)	춘천(2)	삼척(1)	삼척(2)	양양(1)	양양(2)	양구	통천	이천	인제	평균
1 호 남	1.4	1.2	1.6	0.4	1.0	2.3	2.0	0.7	2.2	1.3	1.41
가족녀	6	2	5	1	2	5	5	1	4	2	3
계	1	1	2	—	4	4	2	1	2	5	2
계	7	3	7	1	6	9	7	2	6	7	5
1개년 작물	122.8	47.0	109.0	9.3	55.2	220.0	98.0	20.2	42.0	66.7	79.02
수입부업	20.0	34.0	40.0	—	20.0	—	20.2	—	30.0	—	17.40
(円) 기타	—	—	—	45.0	—	—	—	30.0	40.0	8.0	12.30
계	142.8	81.0	149.0	54.3	75.2	220.0	128.0	50.2	112.0	74.7	108.72
1개년 식비	126.0	66.8	114.0	49.3	54.82	199.3	98.0	44.78	83.66	66.7	90.34
지출의주비	15.0	8.0	25.0	3.0	16.0	20.0	29.3	4.0	20.0	6.7	14.70
(円) 공과금	1.8	1.2	1.75	—	0.38	0.7	0.42	0.34	1.3	0.86	—
기타	—	5.0	8.25	2.0	4.0	—	—	1.0	8.0	—	2.82
계	142.8	81.0	149.0	54.3	75.2	220.0	128.0	50.2	112.0	74.7	108.72

資料：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15輯 火田の現況

① 農·山村地域의 離農

山村問題를 山村地域에서 행해지는 經濟行為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農業은 山村의

주요所得源이 되고 있으며 離農現象 및 農·山村勞動力의 老齡化, 婦女化 等의 農業問題는 山村問題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5〉 地帶別, 時期別 人口變化率

	70 / 60 ¹	80 / 70 ²	90 / 80 ³	90 / 60 ⁴
山間地域	112.65	98.21	99.81	60.61
準山間地域	110.82	81.83	80.61	61.17
準平野地域	108.70	77.17	78.27	55.89
平野地域	104.30	82.66	83.45	75.07

1 : 70년총인구 / 60년 총인구 × 100 2 : 80년총인구 / 70년 총인구 × 100

3 : 90년총인구 / 80년 총인구 × 100 4 : 90년총인구 / 60년 총인구 × 100

註 : 군단위 시기별 자세한 자료는 부록에 실어두었음.

자료 : 인구센서스, 1960~1991.

위 표는 山村類型化를 통하여 區分된 4개 지역 중 山間地域 15개군, 準山間地域 35개군, 準平野地域 22개군, 平野地域 13개군을 대상으로 작성한 표이다(배재수, 1993, pp. 48~54). 1960년 이후로 진행된 高度成長期間中 1960년

에서 1970년까지는 전쟁이후 베이비붐현상과 새마을운동 및 상대적 高米價政策에 힘입어 약간씩 인구가 증가하였지만 自然增加率에 비추어 보아 증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1970년 이후 지금까지 農·山村 地域의 人口減少는 地帶別

區分에 관계없이 진행된 공통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山間地域과 準平野地域이 다소 높은 人口減少率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人口減少 現象은 農業問題만이 아니라 山村地域에서 벌어지는 山村問題이기도 하다. 이 論文에서는 農·山村地域 全體를 對象으로 人口流出 現象을 고찰해 보겠다.

農·山村 人口減少는 量的인 人口減少와 勞動力의 質을 나타내는 農業經濟活動人口의 減少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農業人口와 農家人口의 減少 및 離農推移를 통하여 量的인

측면을 살펴보자. 農가의 絶對數는 1967년을 고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70년대초 農村經濟의 好轉으로 인한 약간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매년 50여만명 정도의 農家人口가 都市地域으로 流出되고 있으며 1991년 離農人口는 59만명으로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戶當農家人口는 3.77명(1990년기준)으로 日本의 4.51명, 臺灣의 5.08명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農業人口 流出이 正常의 水準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示唆하고 있다(南康源, 1992).

〈표 6〉 農業人口 流出 推移

單位 : 千名

區 分	農家人口	農家戶數	戶當農家人口	農家人口 流出量	
				期 間	人 口 數
1960	14,559	2,350	6.20	'61-65	1,206
1965	15,812	2,507	6.31	'66-70	3,309
1970	14,422	2,483	5.81	'71-75	2,561
1975	13,244	2,379	5.57	'76-80	3,384
1980	10,827	2,155	5.02	'81-85	2,911
1985	8,521	1,926	4.42	'86-90	2,240
1990	6,661	1,767	3.77		

註 : 1. 農가인구유출량 = 예상농가인구 - 실제농가인구

2. 예상농가인구 = 전년도 農가인구 × 전년도 총인구증가율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월보 각년판,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판,

농협중앙회, 1986, 農촌사회구조변화와 農협, p. 20.에서 일부인용.

여기서 주의깊게 보아야 할것은 1964년 大都市 人口防止策이 실시된 이후에도 매년 평균 30만이상이 農·산촌지역에서 유출되어 도시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과 1980년대 말부터는 高齡化·婦女化된 상황에서 勞動력이 계속해서 流出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農·산촌지역의 過疎化問題가 대도시 人口過密의 原因이 되고 있다는 사실과 2차감소현상이 진행되는 지금 農·산촌지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地域經濟가 崩壞될 수도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人口移動은 해방전 農촌에서 이탈되어 화전민으로 전락했던 현상과는 두가지 점에

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인구이동의 方向性으로, 식민지 시기의 인구이동 방향은 비교적 평지에서 산지로 이동한 반면 지금의 인구이동 방향은 산지에서 대도시나 인근도시로의 이동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번째로 人口移動의 原因과 動機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민지 시기의 인구이동의 원인 및 동기는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강요된 이동이며, 정치적, 경제적 변수들이 주가 되었다면 지금의 인구이동은 도시로부터의 강한 흡인력에 의한 자발적인 이동이며 경제적인 변수들이 주가 되었다.

다음으로 人口流出의 質의인 측면인 農業經濟活動人口의 流出量을 살펴보자.

〈표 7〉 農家經濟活動人口 流出推移

單位 : 名

年 度	전국15세 이상인구	농가15세 이상인구	농가예상경제 활동인구	실제농가경제 활동인구	노동력 유출량
1965	15,367	8,663	5,352	5,160	92
1970	17,468	8,163	5,358	5,116	242
1975	20,918	8,583	5,779	5,578	201
1980	24,463	7,891	5,440	5,163	277
1985	27,553	6,155	4,143	3,847	296
1989	30,217	5,405	3,838	3,651	187

註 : 1. 유출노동량 = 예상농가경제활동인구 - 실제농가경제활동인구

2. 예상농가경제활동인구 = 금년도 15세이상 인구증가율 × 전년도 15세이상농가 인구 × 농가경제활동참가율

3. 농가의 15세이상 인구증가율이 전국 15세이상 인구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 남강원. 1992. 농촌노동력 유출과 농업노동력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pp. 10.

농·산촌 지역경제를 책임질 15세 이상 労動力의 流出이 1965년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農業勞動力의 高齡化, 婦女化나 營農後繼者의 不足 등과 같은 質的인 部分에 더욱 큰 影響을 끼치게 된다. 농·산촌지역 인구減少의 유출형태별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60년부터 75년까지 전체 농가총에서 家口移動이 68.2%이고 單身移動이 31.8%로 나타났다.

또한 윤여덕(윤여덕, 1983)의 조사에 의하면 65~70년간에는 家口移動이 優勢하고 70~80년간에는 單身移動이 優勢하게 나타난다. 80년대 이후에는 單身離農이 우세한 가운데 家口離農의 比率이增加하고 있다. 이러한 農·山村人口移動의 原因을 살펴보면 60년대에 家口移動이 優勢한 理由는 50년대 資本蓄積過程에서 零·細農收奪의 政策下에서 廣範圍하게 潛在해 있던 零·細農이 60년대초 輸出志向의 工業化에 따른 雇傭機會의 擴大로 인해大量流出된데서 緣由하며 70년대에는 重化學工業志向政

策으로 짧은 勞動力為主의 勞動需要가增大되었기 때문이다¹⁵.

(2) 林業問題로서의 小規模 山地所有構造

여기서는 1971년부터 1987년까지의 山林所有構造를 통해 解放以後 산림소유구조가 어떻게 變遷되어 왔으며 林業의 基本的인 問題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임업의 자본제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림의 經營規模를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나 전국적인 山林經營規模에 관한 자료의 부족과 山林所有가 잠재적인 산림경영으로 나아간다는 가정하에 분석해 보고자 한다.

① 山地所有의 變遷

山地를 林業이라는 產業的側面에서 바라보았을 때 적정규모 이상의 山地所有는 林業을 優先하는데 必須의인 生產基盤이다. 山林이 갖는 資本財의 特性面에서 生產費를 낮추고 資本의 回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산림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의 山林所有構造는 分斷의 過程

¹⁵ 半田良日(1990)은 일본에서의 산촌문제의 발생원인을 195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를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제는 196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을, 1970년대에는 수출산업을 그리고 1980년대에는 고도화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여 성장하여 왔고 이 과정은 도시·공업 노동력을 바탕으로 모든 자원을 집적하여 확대 재생산해 나가는 과정이었으나 농촌과 산촌에서는 역으로 인구 및 노동력이 도시공업지역으로 대량으로 급속하게 유출되었고, 그 결과 소위 농·산촌에서의 과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아 일본과 우리의 과소문제의 원인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서 더욱 零細해지고 지금에 와서는 資本主義의 商品-貨幣 關係속에서 資本의 擴大再生產이라는 一般的의 經濟法則이 適用되지 않을 정도의 零細한 山林所有構造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영세산림소유구조를 개혁하고자 解放後 林野制度에 대한 檢討가 國會에 한번 上程된 적이 있으나¹⁶ 과거 일본의 잔재를 벗어버리지

못한 채 지금까지 日帝下 所有制度가 踏襲되고 있다.

우선 1946년부터 解放以後 1990년까지의 林野所有 形態別 面積推移를 통하여 山林所有構造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살펴보자(〈표 8〉 참조).

〈표 8〉 林野所有 形態別 面積推移

單位 : 千町步, (%)

	1946	1953	1963	1973	1983	1990
총 계	6,865 (100.0)	6,415 (100.0)	6,695 (100.0)	6,578 (100.0)	6,537 (100.0)	6,460 ³ (100.0)
국유림	1,455 (21.2)	1,232 (19.2)	1,386 (20.7)	1,308 (19.9)	1,315 (20.1)	1,346 (20.9)
一요준	650 (9.5)	—	906 (13.5)	901 (13.7)	907 (13.8)	981 (15.2)
一불요준	285 (4.2)	—	430 (6.4)	307 (4.7)	307 (4.7)	251 (3.9)
一타부처	520 ¹ (7.6)	—	50 (0.7)	100 (1.5)	104 (1.6)	114 (1.8)
민유림	5,410 (78.8)	5,183 (80.8)	5,308 (79.3)	5,236 (79.6)	5,208 (79.7)	5,114 (79.1)
一공유	873 (12.7)	560 (8.7)	562 (8.4)	493 (7.5)	493 (7.5)	489 (7.6)
一사유 ²	4,537 (66.1)	4,263 (66.5)	4,746 (70.9)	4,769 (72.1)	4,714 (72.1)	4,625 (71.5)

1: 歸屬林野

2: 寺刹林이 포함되었음

3: 미조사지 면적 15,836정보는 제외

자료 : 1946년의 경우 朝鮮經濟年譜 1948년판, 그 외는 山林廳 林業統計要覽

¹⁶ 임야개혁에 관한 논의가 1948년 제헌의회에서 曹奎甲·曹泳珪의원이 「산림은 원칙적으로 국유화하고 소면적 농촌공유림 및 농가사유림은 용인하되 그 소유의 한도 및 조림개간방법은 법률로서 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지고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후 조봉암의원이 임야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많은 논의가 계속되었고 徐相日의원이 「산림은 국유 또는 공유를 원칙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유를 용인하자」라는 의견을 표결에 붙였지만 재석 173명 중 찬성 49, 반대 112로 부결되었다(김성호, 1990).

國有林의 경우 1946년 1,455千町步에서 1990년 1,314千町步로 141千町步의 面積이 줄어들었고 비율은 21.2%에서 20.9%로 약간 줄었다. 民有林의 경우 公有林이 12.7%에서 7.5%로 줄어들었고 私有林은 66.1%에서 71.6%로 5.5%增加하였다. 해방이후 山地面積 減少의 68.8%가 公有林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山地轉用의 大部分이 公有林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2) 私有林 所有規模와 性格

1971년 이후 지금까지 山林所有調查는 3회에 걸쳐 全國單位로 이루어졌고 이것을 所有別, 面積別, 筆地數別로 나누어 歪曲된 山主層 分解와 山地所有의 性格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전적인 山主層 分解를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農民層 分解의 形態로 바라본다면 生產者로서의 林業人들이 상품생산하의 시장경제를 계기로 전통적인 3분체제인 山林所有者, 借地山林經營者, 林業勞動者가 資本家와 賃勞動者로 분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資本主義의 形成發展에 있어서 資本을 위하여 필요한 賃勞動者를 創出하는 과정이며 典型的으로는 林業이라는 社會의 分業의 領域에 있어서 資本制의 關係를 形成해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의 산림소유구조를 밝혀보고자 한다. 초과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林業經營을 하기 곤란한 零細所有規模를 1ha미만이라고 할 때 1971년 山主數의 경우 零細山主가 全體 山主數의 55.9%에서 1985년 59.8%, 1987년 60.4%로 늘어나 갈수록 下向分解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山林經營形態面에서 所有規模가 50ha 이상인 경우는 적어도 兼業的 山林經營이 가능한 규모라 할 때(朴泰植, 1980; 成奎哲 等, 1983) 1971년 6,502명에서 1987년 7,402명으로 上向分解의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전체 산주수에 비하면 미미한 증가이다. 山林의 所有規模가 50ha이상일 경우 山林所得을 目的으로 山林을 所有하는 比率이 43.4%인 것에 비해 50ha미만인 山主는 22.2%만이 山林所得을 目的으로 山林을 所有하는 것으로 나타나 山林所有規模가 林業으로 나아가는데 重要한 變數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남균, 1992).

결국 1ha미만을 所有한 山主가 차지하는 全體 山林面積은 1971년 8.3%에서 87년 6.6%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1ha미만의 山主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現象으로 山主의 下向分解를 보여주는 例이다. 이것은 筆地數의 推移에서 더욱 명확해지는 데, 0.5ha미만의 筆地數가 86만필지에서 124만필지로 약 38만필지가 늘어나 山主數는 늘고 所有面積은 줄어드는 상황에서 山地는 더욱 작게 분할되어 所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1971년 山主 1인이 所有하는 平均 山林面積이 2.6ha에서 1987년에는 2.5ha로 약간 줄어들었지만 1971년 1筆地當 平均 1.85ha의 山林이 있었던 것에 비해 1987년에는 1.42ha로 줄어 이러한 現象이 전 산림에서 일어나는 現象임을 立證해 준다. 筆地數의 增加는 所有規模에 關係없는 現象으로 山地所有의 目的이 林業을 위한 生產基盤의 擴充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墓地確保와 財產增殖의 形態로 진행돼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私有林所有者에게서 보여지는 山主層 分解란 임업을 통하여 地代이상의 超過利潤 創出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산지의 부동산적 價值增殖이라는 왜곡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의 山主層 分解는 日帝에 의한 封建的 土地所有의 해체방식에 있어 歪曲되고 解放後 農業부문의 土地改革에 비해 山林에서는 林業改革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일제하 山林所有關係가 溫存－維持되고 있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다. 지금의 사유림 所有構造를 고전적인 3분체제로 바라본다면 토지소유자(임업부분에서는 산림소유자)는 존재하지만 임업을 경영할 차지산림경영자와 임업노동자가 분화되지 않은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所有構造는 林業의 低收益性, 資本回轉의 長期性과 같은 林業問題를 밀접하게規定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林業問題의 本質로 자리잡을 수 있다. 실지로 林業의 低收益性과 資本回轉의 長期性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林業 先進 여러나라에서도 공통된 것이며 단지 山林所有關係가 封

建的 土地所有關係를 解體하고 資本制的 關係로 자리잡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III. 結論

첫째, 우리나라와 日本, EC의 山村定義를 比較하여 우리나라에 適合한 山村概念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촌은 지리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주위가 山林이라는 環境에 둘러쌓여 위치하는 지역의 개념으로, 지리적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측면에서 山林이라는 環境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歷史的으로 形成한 村落으로, 그리고 산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1960년대 이후의 高度經濟成長期間동안 資本의 效率性이 떨어지는 관계로 社會·經濟의 으로 落後된 地域으로 定義될 수 있다.

둘째, 解放以後 農·山村人口의 流出은 1950年代에 廣範圍하게 存在하고 있던 農·山村勞動力を 1960年代의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實施함과 同時에 工業化로 인한 雇傭機會의 擴大로 그들을 흡수하면서 發生하였다. 農·山村地域의 流出人口는 1965年 以後 每年 50萬名에 달하며 質的인 農家勞動力を 代辯하는 農家經濟活動人口의 유출은 1970年代 初盤의 運화시기를 除外하고는 매년 20만명을 웃도는 水準이었고 1985年 以後에도 年平均 38萬名 以上이 流出되고 있는 實情이다.

세째, 流出形態別로 살펴보면 1960–1970年에는 家口移動이, 1970년–1980年에는 單身移動이 優勢하였고 80年代에 들어와 單身移動이主流를 이루는 가운데 家口移動이 部分的으로增加하는 趨勢이다.

네째, 1946年 以後 1990年까지의 山林所有構造의 變化는 私有林이 약간씩 增加하고 公有林과 不要存林이 他用途로 轉換되어 줄어드는 現象으로 要約된다.

다섯째, 私有林 所有規模는 1ha미만을 所有한 山主가 1971年 全體 山主의 55.9%에서 1987년 60.4%로 增加하였지만 面積은 같은 기간 8.3%에서 6.6%로, 筆地數는 0.5ha미만의 筆地數가 86萬筆地에서 124萬筆地로 늘어나 西

歐의 傳統的인 山主層分解와 다름을 보여준다. 이는 山地所有의 目的이 林業을 生產基盤 擴充보다는 墓地確保나 財產增殖의 形態로 進行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小規模 山地所有는 林業投資의 기회를 낳게 되는 주요한 原因이 되고 있다.

여섯째, 일제시대 山村의 發生은 日帝의 植民地 政策으로 강제된 地主–小作關係와 收穫物의 5내지 7割에 달하는 高率의 現物小作料를 빼앗기는 半封建的 收奪에 基因하며 이는 1914年부터 1938년까지 약 95萬町步의 小作地가 增加함에 따라 火田民數 역시 1926年 34,316戶에서 1933年 60,477戶로 76%가 增加한 사실로 입증된다.

일곱째, 解放前 山村地域이 안고 있던 가장 큰 산촌문제는 絶對的 貧困이었다. 당시 山村住民은 資本을 蕢積할만한 基盤을 갖지 못하고 自給自足의 經濟構造를 갖고 生活을 維持해 나갔다.

參考文獻

- 姜萬吉, 1987, 日帝時代 貧民生活史 研究: 火田民의 生活, 創作社.
- 江原道, 1976, 火田整理史.
- 경제기획원, 1970–1990, 경제활동인구연보.
- 경제기획원, 1970–1990, 한국통계월보.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90. 한국의 사회지표.
- 金浦均, 1992, 山主의 山林投資誘引政策과 私有林 投資誘引政策에 관한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 김성호 외 3인, 1990. 산지소유제도와 투자제도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26.
- 金一鐵 外, 1988, 山地 및 山村地域開發을 위한 發展指標 設定에 관한 研究.
- 南康源, 1992, 農村勞動力 流出과 農業勞動力構造 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内무부, 1990, 한국도시연감.
- 농림부 농지국, 1962, 우리나라의 농지제도.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각년판.

- 농업진흥공사, 1987, 지리산부근의 산촌지역에 대한 사례연구.
- 東亞日報 1926년 7월 11일자: 孟山火田民困境.
- 東亞日報 1927년 3월 18일: 火田民流離.
- 東亞日報 1928년 10월 2일: 百六十萬 火田民에 未墾地貸與도 水泡.
- 東亞日報 1929년 6월 24일 苦海巡禮(4).
- 류우익 외, 1988, 산촌지역 정주체계의 정비방안 연구
- 米昇右, 1983, 日帝農林收奪相, 綠苑出版社.
- 조선은행조사부, 1948, 토지개혁문제, 조선경제연보.
- 박진도, 1989, 한국농업문제의 이해 : 농업문제, 한길사.
- 배진한, 1977, 농촌노동력 유출과 노동시장, 서울대 석사논문.
- 山林廳, 1980, 火田整理史.
- 俞仁浩, 1989, 해방전후사의 인식1, 해방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 농지개혁의 토지제도사적 의의, 한길사.
- 윤여덕, 1983, 농촌인구이동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李廣遠, 1989, 21세기를 향한 林業發展과 山地利用戰略, 농촌경제연구원.
- 이영기, 1988, 한국 농업, 농민문제 I : 농민총분해의 동향과 계층구성, 연구사.
- 이정용, 1989, 한국농업문제의 이해, 농가인구와 이농, 한길사.
- 통계청, 1960-1990, 인구센서스.
- 산림청, 1990, 임업통계요람.
- 장상환, 1985, 해방전후사의 인식2 : 농지개혁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길사.
- 張宇煥, 1989, 山村地域의 類型에 관한 研究, 農村經濟 第12卷 第4號.
- 朝鮮日報 金在錫 1931년 3월 8일자, 朝鮮의 火田과 火田民生活(2).
- 朝鮮日報 金在錫 1931년 3월 15일자, 朝鮮의 火田과 火田民生活(4).
- 朝鮮日報 金在錫 1931년 3월 17일자, 朝鮮의 火田과 火田民生活(5).
- 朝鮮日報 金在錫 1931년 3월 18일자, 朝鮮의 火田과 火田民生活(6).
- 최재현, 1992, 열린 사회학의 과제, 창작과비평사.
- 노버트 엘리아스저 최재현 역, 1987, 사회학이란 무엇인가. 나남.
- 최호진, 1962, 한국경제사개론, 보문각.
- 통계청, 1991, 한국통계연감.
- 洪慶姬, 1986, 村落地理學, 法文社.
- 國土廳地方振興局過疎對策室, 1990, 新過疎對策ハンドブック – 過疎地域活性化特別措置法のあらまし –
- 宮出秀男, 1956, 農村潛在失業論, 有斐閣.
- 半田良一, 1990, 林政學, 文永堂出版.
- 森 嚴夫, 1973, 山村經濟論, 農林出版.
- 神谷慶治, 1967, 日本の山村問題 I, 東京大學出版會.
- 鹽谷勉, 1973, 林政學, 地球社.
- 永田惠十郎, 1989, ECの[山村地域對策](1), 山林 1989, 12.
- 朝鮮總督府 統計年譜, 1910-1942,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 調査資料 第15輯 火田の現狀.
- 朝鮮總督府, 1925, 朝鮮の林業.
- 朝鮮總督府, 1938, 朝鮮林野調査報告書.
- 萩野敏雄, 1964, 朝鮮, 滿洲, 臺灣林業發達史論, 林野弘濟會. p, 43.
- (秘) 火田に關する參考書 第2冊.
- Elias, 1983, ber den R ckzug der Soziologie auf die Gegenwart, K lner, Zeit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Vol, 35.
- Yoo-Hyuk Kim et al, edited, Selected Readings in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Seoul: Shinyang Printing, 1982), p, 112.
- R, H, Maciver & C, H, Page, 1967, Society, London, Macmillan, p, 9.